

■ 한 '경선 룰' 확정...李-朴 "전쟁은 지금부터"

경선안 세부조율·검증논란 '첩첩산중'

한나라당이 '경선 룰' 논란을 극적으로 매듭지으면서 일단 과국위기에 벗어났지만 향후 경선국면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막판 양보로 우여곡절 끝에 큰 틀의 경선 룰이 합의된 듯이 보였지만 세부 조정을 정예한 대립각을 세워 향후 논란이 언제든 재연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여기에서 후보검증과 경선관리위 구성, 당직 인선 등 경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민감한 사안 하나하나를 놓고 양측이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대승적 양보” Vs “원칙 밀려 항복”

당이 언제든 제2, 제3의 분열위기로 내몰릴 공산이 있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양 캠프 관계자들도 공공연하게 “이제 겨우 3부 능선에 도달했을 뿐이다”,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부터다”는 말을 내뱉고 있다.

▷여론조사 양보 평가 시각차=양측은 15일 이전 시장의 '양보'를 놓고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리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 향후 논란이 언제든 재연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이전 시장측 정두언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 “이전 시장이 이번엔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했지만 짚을 것은 분명히 짚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전 대표측 유승민 의원은 “원칙이 무원칙을 이긴 것으로 본다. 이 전 시장측에서 ‘통큰 정치’ 운운하는데 솔직히 자기들한테 유리한 안을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김학원 전국위원회 의장과 인사하며 미소짓고 있다.

갖고 1주일 가장 난리를 피우다 명분과 원칙에 밀려 항복한 것 아니냐”고 일축했다.

▷넘어야 할 과제 첩첩산중=양 측간 가장 큰 쟁

여론조사 방식 대립 불가피

점이었던 경선 룰이 합의된 듯이 보이는 어디까지나 큰 틀의 합의일 뿐 앞으로 조율해야 할 세부 조항들이 많다는 점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우선 양측은 여론조사 문제와 관련, 여론조사기관 선정에서부터 여론조사 기법, 설문조항 선정 문

제에 이르기까지 세부 조항 하나하나를 놓고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질문방식을 '선호도'로 하느냐 '지지도'로 하느냐 ▲질문을 1차로 끝내느냐 2차까지 가느냐 ▲여론조사 대상 등을 놓고도 양측 간 대립이 불가피하다.

후보 검증 문제도 복병이다. 박 전 대표측 최경환 의원은 “경선 룰이 타결됐으니 바로 검증국면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시장측 정두언 의원은 “상대 후보 공약을 ‘대국민사기극’이라고 하는 등의 네거티브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미래구상’ 정치 행보 시동

어제 출범... 최열·양길승·임진택씨 공동대표

연말 대선을 앞두고 진보진영 시민 사회세력의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한 ‘창조한국 미래구상’과 ‘통합과 번영을 위한 국민운동’이 15일 통합출범식을 갖고 정치행보를 본격화한다.

두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과 번영을 위한 미래구상(이하 미래구상)’ 창립총회를 갖고 양 조직의 통합을 선언하는 한편 최열 환경재단 대표, 양길승 녹색병원장, 연극연출가 임진택씨 등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미래구상은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정치운동 ▲정치참여 활성화사업 ▲민주평화진보개혁세력의 정치세력화 ▲정치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활동방향으로 정하고 국가와 국민

을 책임지는 새로운 정치주체, 사회개혁의 주체로 나설 것을 천명할 예정이다.

미래구상은 16일부터 6월15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는 강연회, 토론회 등을 통해 신당 필요성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조직 내에 정치특위를 뒀 참신한 ‘정치신인’을 키우는 공간도 마련했다.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7080 민주화학생운동연대’, ‘민주화운동공제회’, ‘5·18 청년학생 참배단’, ‘진국교수노조’ 등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민참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래구상은 진보진영 신당창당 작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지만 독자 창당을 통한 세력화를 피하는 대신 최열 대표 등

시민사회세력이 추진중인 창당작업에 협력하는 방식으로 행동방향을 정했다.

진보 진영은 조직정비가 완료되면 정책과 노선을 공유하는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경선을 실시, 독자후보를 배출한다는 계획이지만 범여권의 통합작업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데다 기성정치권까지 아우를 만한 주도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성사 여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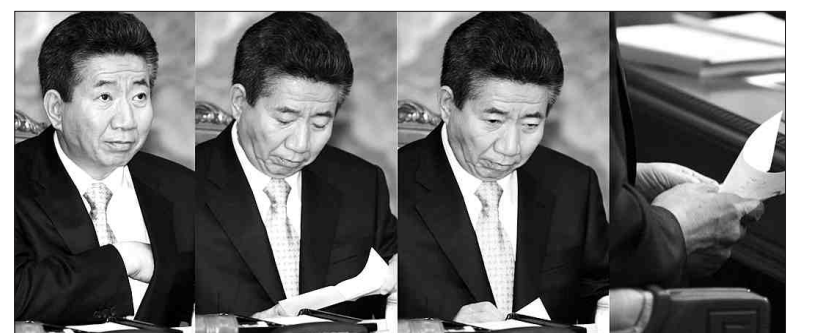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들 그룹이 기성정치권까지 포괄하는 신당창당을 이루지 못할 경우 ‘제3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16개 여론조사 기관 선관위, 대대적 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16개 여론조사기관을 상대로 선거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대선 또는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기관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것은 처음으로, 선관위는 지난 주 16개 여론조사기관들에 공문을 보내을 초부터 언론에 발표한 대선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의 질문지와 조사설계서 등 자료 일체를 제출하도록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동안의 여론조사 방법에 있어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 다수 적발돼 또 일제 조사가 들어갔다”며 “그러나 이번 조사는 특정 대선주자의 유불리 여부와 관련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작년 8월 방정거를 앞두고도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현재 일부 대선주자 캠프에서 몇몇 여론조사기관이 특정 결과에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은 무슨말 하려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쪽 자리 메모를 보며 국정과 관련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15일 국무회의에서도 노 대통령은 어느 때처럼 메모 쪽지를 꺼냈지만 한참을 유심하 살펴본 보다 메모를 접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쪽 자리 메모를 보며 국정과 관련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15일 국무회의에서도 노 대통령은 어느 때처럼 메모 쪽지를 꺼냈지만 한참을 유심하 살펴본 보다 메모를 접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 이전 흔들림 없이 추진”

盧대통령, 각 부처에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속도를 내서 이 계획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이같이 지시하고 “부처별 추진방향과 과제에 대해서는 완료 후 그 결과를 다시 한번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스승의 날인 이날 전국 유치원·초·중등 교원 30여만 명에게 이메일로 보낸 축하메시지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입 3원칙,

이른바 ‘3불정책’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현재의 대입제도만으로도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교육현실에 대한 잘못된 진단을 갖고 우리 교육에 진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걱정”이라며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보고서나 고교등급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허리가 휘고, 공교육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계층 이동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사회 통합마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李-朴 ‘경선체제’ 본격 돌입

李, 선대위원장 박희태·주내 대책본부 인선 朴, 선대위원장에 안병훈 본부장 유력

한나라당 경선 룰을 둘러싼 내용이 일단락되면서 양대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가 경선 체제를 본격화할 태세다.

지난 10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 대권가도에 ‘선수’를 친 이 전 시장은 이르면 금주내에 경선대책본부의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정식 캠프를 출범시키다는 계획이다.

선대본부의 ‘큰 어른’적인 위임장에는 박희태 전 국회부의장이 사실상 확정됐으나 선대본부장, 대변인, 비서실장, 조직책임자 등은 아직 최

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캠프내 ‘자리 경쟁’도 치열하다는 후문이다.

이밖에 지난주말 캠프 사무실을 견지동(안국포럼)에서 여의도로 이전한 데 이어 그동안 공개를 꺼려왔던 조직책과 정책자문단도 일부 공개하고 이들을 캠프내로 편입시키면서 경선 대비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다.

박 전 대표 진영도 경선 룰 논란이 마무리됨에 따라 ‘경선체제 모드’로 이동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선대본부는 박 전 대표가 주변에 명확하게 의

사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현 캠프 구성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로 미뤄 현재 안병훈 캠프 본부장이 선대위원장을 맡고 선대본부장은 사무총장을 역임한 김무성(3선), 허태열(재선) 의원이 공동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던 서정원 전 대표는 그대과 고문직을 맡으며 ‘리베로’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6월 1일 첫진도 개강 227-8003 971-0002

국비무료모집 과 정 교육내용 기업사무자동화인력양성 원도우, 워드, 엑셀, 컴퓨터활용능력 등

7.9 급 공무원 대비 6월 1일 개강 222-4560

9월 9일 경찰 시험대비 합격특강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현대직업전문학교 224-4560, 224-4580, 232-1088

Speed 인생역전! 대학편입, 의치, 한의학전문대학원 합격생 70% 김영출신 227-8088